

##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

유경동\*\*

### 국문초록

세계적으로 '난민(refugees)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많은 난민들이 지구촌의 바다나 육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 입장들이 계층과 학계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상황이다. 한국 법무부는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며 서구사회의 난민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적 책무의 중요성과 아울러 현실적인 난민 정책을 위하여 국가는 노력중이라고 알리고 있고,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아우르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및 국내의 난민의 지위와 처우문제에 관하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사랑과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을 보는 입장과 이슬람교의 배경을 가진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이 있으며, 한편,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의 시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학계에서도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난민이 처한 폭력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하여 평화를 위한 기독교신학의 역할과 기독교윤리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난민'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관점에서 관계된 이론들을 정리하여 보겠다. 둘째, 난민과 연관된 신학적 관점에서 '난민 신학'의 이론을 정립하여 보겠다. 셋째,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과 관련하여 기독교윤리학의 사명과 과제로서 난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신학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난민, 난민 신학, 평화, 밀입국자 하나님, 난민 그리스도, 기독교윤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814).

\*\* 감리교신학대학교 / 기독교윤리학 [peaceground@hanmail.net](mailto:peaceground@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성서에 나오는 ‘밀입국자 하나님’과 ‘난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국경의 문지방에서 영원히 문을 두드리며 서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정체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그리고 예언자적 환대의 제자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sup>1)</sup>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난민을 관용의 차원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끼치거나 이질적 집단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up>2)</sup>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난민법<sup>3)</sup>에 따르면, 난민의 지위는 ‘인종,’ ‘종교,’

---

1) Ched Myers, "Introduction: Church without Borders," Ched Myers and Matthew Colwell, *Our God Is Undocumented: Biblical Faith and Immigrant Justice* (NY: Orbis Books, 2012), 71. 참고로 단어를 강조하는 작은따옴표(‘ ’)는 필자가 임의로 붙였음을 밝힌다.

2) 한국경제, "[난민, 세계의 위기] ⑤ 엇갈린 두 시선... '관용의 대상' vs '안보에 위협,'" 2018.7.3.  
[온라인자료] URL=<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39402Y> (2019. 1. 15 접속).

3)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법제처, “난민법(2016.12.20.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자료] URL=<http://www.law.go.kr/> (2019. 1. 11 접속). 1951년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국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연관된 다섯 가지 사유와 관련하여 박해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2조(정의) 3호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sup>4)</sup>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1994년 이후 2019년까지 대략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철회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약 5만 명 정도 되며 그 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950명, 그리고 인도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파악된다.<sup>5)</sup> 위와 같은 난민법의 시행에 관하여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 문제와 연관된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법무부는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겠다는 입장을 내 놓은 상태이다.<sup>6)</sup>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인원이 139위, 그리고 OECD 35개국 중 34위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난민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적 책무의 중요성과 아울러 현실적인 난민 정책을 위하여 국가는 노력 중이라고 알리고 있고,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아우르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은 국제사회 및 국내의 난민의 지위와 처우문제에 관하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사랑과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을 보는 입장과 이슬람교의 배경을 가진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이 있으며, 한편,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난민 수용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학계에서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입장이 나

4)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앞의 법률.

5)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0.4 퍼센트만이 난민 지위 얻었다.” YTN 라디오 FM 94.5(20:20-21:00), 2019. 3. 25. URL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51913225548](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51913225548) 이 프로그램에서 유엔난민기구 공보관인 신혜인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에 의하면 제주도 예멘 난민의 경우 500여 명 중, 412명이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았고,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6) 이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폐지/개헌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이 자료는 2018. 6. 13. 청원을 시작하여 2018.7.13. 청원이 마감된 사안이며 브리핑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온라인자료] URL=<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2019. 1. 11 접속).

7) *Ibid.*

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난민이 처한 폭력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하여 기독교신학의 역할과 기독교윤리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sup>8)</sup> 특히 난민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혐오와 이에 따른 폭력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 ‘난민’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 영어권 이론들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특히 난민들이 처하게 되는 ‘공간의 상실’과 이에 따른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란 주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둘째, 영어권 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난민 신학’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신학적 인간학의 사명을 강조하여 보겠다. 그리고 셋째, 기독교윤리학의 사명과 과제로서 평화를 증진하는 기독교신학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한계는 영어권 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여 ‘난민 신학’에 관한 이론을 유형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한국 기독교계 난민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후 이어지는 논문을 통하여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II. 난민: 공간의 상실

필자가 난민에 주목하면서 첫 번째 주목한 난민의 특성은 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활 터전을 잃고 부득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소로서 ‘공간의 상실’에 관한 것이다.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치게 되는 난민들은 비자발적 요인으로

8) 지식콘텐츠 DBpia를 통하여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난민’을 검색하여 보면, 약 810개 정도의 논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난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학계에서의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난민 신학’이라는 논문제목도 보이지 않는다. 누리미디어, DBpia, [온라인자료] URL=<http://proxy.mtu.ac.kr:8080/http/www.dbpia.co.kr/searchResult> (2019. 1. 11 접속). 참고로 인터넷 지식검색창을 통하여 ‘난민 신학’을 검색하여보니, ‘난민 신학’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 책은 다음과 같다. 안교성, 『한국교회와 최근의 신학적 도전』 (문화선교연구원, 2017), 6장, “난민 신학-난민, 새롭고도 오래된 기독교의 과제.” [온라인자료] URL=<http://www.cricum.org/1293> (2019. 1. 11 접속).

말미암아 떠밀려서 자신의 고향을 근거한 생활터전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소위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정치 사회 집단이나 정치적 의견의 지지자라는 이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국적 국가를 벗어난 사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본국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기를 꺼려하는 사람”<sup>9)</sup>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보면, 난민은 자신이 살던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이주할 수밖에 상황을 전제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깊게 연관이 되며 특히 세계화의 흐름과 직결되는데,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인구의 이동, 또는 이주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며, 난민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sup>10)</sup> 홀렌바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세계화의 현실에 있어서 핵심적인 면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이주는 [이주자 또는 이주자들이 유입되는 지역의 원래 거주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동시에 해를 미친다”<sup>11)</sup>고 주장한다.

홀렌바흐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동반하는 이주는 자발적 이주뿐만 아니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며, 난민은 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박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이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2)</sup>

9)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art. 1(A)(2), 14.

[온라인자료] URL=https://www.unhcr.org/en-us/3b66c2aa10 (2018. 11. 25 접속)

10) David Hollenbach, SJ, “A Future Beyond Borders: Reimagining the Nation-State and the Church,” Agnes M. Brazal and Maria Teresa Dávila, eds., *Living With(Out) Borders: Catholic Theological Ethics on the Migrations of Peoples* (NY: Orbis Books, 2016), 223–224.

11) *Ibid.*, 224.

12) *Ibid.*, 224. 비자발적 이주자로서 난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홀렌바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민은 특별한 종류의 이주자”이며, “자신들의 이동에 있어서 거의 선택권이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난민은 “강제적 이주자”(forced migrant)이다.

그러나 그는 “이주 문제는 국경과 국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성찰을 요구한다”<sup>13)</sup>고 주장하면서 난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홀렌바흐는 비이주민 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은 비록 난민의 처지 처럼 국경을 넘게 되는 상황에 처하여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실제 처한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어선 난민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난민을 단순히 국경을 넘어선 이주자로 제한 할 때, 비록 월경을 하지 않았지만 비이주민이나 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난민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런 맥락에서 난민에 대한 정책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국경을 넘어가기 원하는 난민 신청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주장하는데, 그는 이주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주자가 처한 열악한 생활과 이에 대한 처우 문제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5)</sup> 사센은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되었던 이민자의 문제는 그 사안이 분명하였지만, 현재의 경우는 밀입국이나 난민 신청과 같은 복잡한 사안들과 연관이 된다고 본다.<sup>16)</sup> 사센은 “[고향 이] 전쟁터나 농장, 또는 관문이 설치된 민간 공동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17)</sup>

위와 같은 대표적인 예로 진 자루(Jean Zaru)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근대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자신의 기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은 기존 팔레스타인 영토 안(점령지)과 영토 밖에 거주하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18)</sup> 그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대다수는

13) *Ibid.*

14) *Ibid.*

15) Saskia Sassen, “The Making of Migrations,” Agnes M. Brazal and María Teresa Dávila, eds., *Living With(Out) Borders: Catholic Theological Ethics on the Migrations of Peoples*, 11.

16) *Ibid.* 사센(Sassen)이 그의 논문에서 제기하는 과거는 1950년대와 1970년대를 의미하며 현재의 시점은 2010년대 이후를 설명하고 있다.

17) *Ibid.*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점령지역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19)</sup> 자루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난민에 의한 신학은 기본적으로 해방신학적 운동으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sup>20)</sup>

알레인 위버(Alain Epp Weaver)는 진 자루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의 삶의 맥락과 그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자루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이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거주 외국인”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삶의 터전을] 뿌리 채 뽑히고, 그것들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기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비이주민 난민이 자신의 고향과 재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sup>21)</sup>

18) Jean Zaru, *Occupied with Nonviolence: A Palestinian Woman Speak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23.

19) *Ibid.*

20) *Ibid.*, 24. 알레인 위버(Alain Epp Weaver)는 자루(Zaru)의 관점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난민은 “[삶의 터전을] 뿌리 채 뽑힌 사람들(uprooted people)”로 정의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Alain Epp Weaver, *Mapping Exile and Return: Palestinian Dispossession and a Political Theology for a Shared Future* (Minneapolis: Fortress, 2014), 4-5.

21) Alain Epp Weaver, *Mapping Exile and Return: Palestinian Dispossession and a Political Theology for a Shared Future* (Minneapolis: Fortress, 2014), 5. 위버는 자루의 인용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 다다른 데에 있어서 이 글 앞에서 자루(Zaru)를 인용하며, 살만 아부-싯타(Salman Abu-Sitta)의 입장을 빌려서 설명한다. 위버의 자루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 Jean Zaru, *Occupied with Nonviolence: A Palestinian Woman Speaks*, ed. by Diane L. Eck and Marla Schrad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23, 49, 55-56. 위버가 아부-싯타를 인용한 부분은 위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라는 문장인데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재인용: Salman Abu-Sitta, “Un Pays Aboli de la Carte,” Farouk Mardam-Bey and Elias Sanbar ed., *Le Droit an Retour: Le Problème des Réfugiés Palestiniens* (Arles: Actes Sud, 2002), 101-108. 위버는 자루의 논지를 다음에서 인용한다. Jean Zaru, *Occupied with Nonviolence: A Palestinian Woman Speaks*, 23, 49, 55-56.

위버는 난민을 정의하려 할 때,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난민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난민들의 구체적 삶의 실존들과 의미들을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와 같은 일반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홀렌바흐가 강조하는 것은 비이주민 난민이나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독교 신학은 난민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처럼, 기독교는 “종교, 인종, 국적”과 같은 기준으로 집단을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주장한다.<sup>23)</sup>

같은 관점에서, 윌리엄 카바노(William Cavanaugh)는 “국경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지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정의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기 위함이다. 이민자들이 가지게 된 정체성이란 곧 주변인 정체성으로[국경으로 정의되는 주변인으로서] 국경을 넘어 온전히 여기도 아니고 저기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정체성”<sup>24)</sup>이라고 설명한다.

22) *Ibid.*, 13. 위버는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하여 필립 쉘드레이크(Philip Sheldrake)의 관점을 빌리고 있다. 재인용: Philip Sheldrake, *Spaces for the Sacred: Place, Memory, and Ident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7.

23) David Hollenbach, S J, “A Future Beyond Borders: Reimagining the Nation-State and the Church,” Agnes M. Brazal and María Teresa Dávila, eds., *Living With(Out) Borders: Catholic Theological Ethics on the Migrations of Peoples*, 226. 홀렌바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의 9명으로 구성된 가톨릭 주교들이 이민자들을 대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크리스토퍼 해일(Christopher Hale)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누가복음을 예로 들고 있다. *Ibid.*, 226.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재인용은 다음과 같다. Christopher J. Hale, “Cardinals Prove Borders Cannot Block the Love of Jesus Christ,” April 2, 2014, <http://dtime.com/>, Drew Christiansen, “Movement, Asylum, Borders: Christian Perspectiv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1(1996), 7-11; and Avery Dulles, “Christianity and Humanitarian Action,” Kevin Cahill ed., *Traditions, Values and Humanitarian Ac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Health and Cooperation, 2003), 5-20.

24) William T. Cavanaugh, *Migrations of the Holy: God, State,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74.



필자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난민의 특성으로서 국경을 넘어설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공간의 상실’에 대한 상황을 개략하였다. 그리고 난민은 국경 안과 밖의 기준으로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비이주민 및 거주 외국인을 망라하여 삶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여야 된다는 점을 이론들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이제 다음에서 ‘공간의 상실’에 대한 난민의 문제는 결국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III. 난민: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

필자가 난민의 정체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두 번째 특성은 난민이 ‘공간의 상실’에 처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에 관한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 자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며 생의 의미는 상실된다. 기독교학자들은 성경에서 실존의 위기에 빠진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내용을 난민 문제와 연관하여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한다. 체드 마이어스(Ched Myers)는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명사 게르(ger)는 92회, 그리고 동사 구르(gur)는 94회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때 그 뜻은 “여행자”, 또는 “거주 외국인”으로 해석되어지며,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소개한다.<sup>25)</sup>

성경 자체도 난민과 연관하여 신학적 의미를 깊게 그 지평을 열어 준다고 설명하면서 난민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스미스-크리스토퍼(Daniel L. Smith Christopher)는 난민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 유다 멸망 이후 바빌로니아 추방 시기의 신학적 중요성에 주목하는데,

25) Ched Myers, “Introduction: Church without Borders,” Ched Myers and Matthew Colwell, *Our God Is Undocumented: Biblical Faith and Immigrant Justice* (NY: Orbis Books, 2012), 57. ‘게르’에 대한 해석은 각주에 있다(Fn. 5), 214.

그는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추방은 인간에게 닥친 재앙이며, 그리고 사회적이며 종교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관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월터 부르그만(Walter Brueggemann) 등의 신학적 입장이 반영된 ‘추방 신학’(exilic theolog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디아스포라적 신학’(Diasporic theology)<sup>27)</sup> 개념을 발전시킨다.

스미스-크리스토퍼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초국가적(trans-national), 또는 비국가적(non-national) 맥락에 살고 있음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디아스포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8)</sup> 이러한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에 처한 인간은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과의 예언자적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현재 세계의 불공평한 권력 구조 및 착취와 억압을 조장하는 경제 구조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sup>29)</sup>

26) Daniel L.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2002), 6.

27) *Ibid.*, 6-7. 스미스-크리스토퍼는 추방 신학의 신학적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추방신학’은 가장 획기적이며, 창의적이고,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교의 틀을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하여 했던 종교적 통찰로부터 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책, 6. 스미스-크리스토퍼는 위에 언급된 신학자들을 소개할 때, 별도의 인용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28) *Ibid.*, 11., 스미스-크리스토퍼는 엠마뉴엘 골드스미스(Emanuel Goldsmith)의 아래 연구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Emanuel Goldsmith, “Yiddishism and Judaism,” Dov-Ber Kerler ed., *The Politics of Yiddish* (Walnut Creek, Calif.: Altamira, 1998), 15.

29) *Ibid.*, 11-13. 스미스-크리스토퍼는 구약성경의 바벨론포로를 통하여 예언자적 전통이 약화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기독교를 통하여 다시 그 정신을 회복하였고, 이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공인 이후 어거스틴 시대부터 기독교의 본질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시 디아스포라의 종교적 실존을 회복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스미스-크리스토퍼가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하워드 요더(Howard Yoder)의 관점을 다음 논문을 통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각주 재인용: John Howard Yoder, “The Constantinian Sources of Western Social Ethics,” in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39-140; [idem] “The Disavowal of Constantine: An Alternative

스미스-크리스토퍼는 ‘난민’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난민 문제에 대한 성서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성서의 이야기를 새롭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sup>30)</sup> 모든 인간이 추방과 디아스포라적 실존을 공유한다면, 이는 국가주의적 한계를 벗어나, 초국가적인 상호 연결성과 지역을 넘어서는 이동성을 통한 세계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국가를 갖지 못한 상태인 난민을 편견을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며, 인간 모두는 공통된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난민 신학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위버(Alain Epp Weaver)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난민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디아스포라’와 ‘추방’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하우어워스나 윌리몬이 주장하는 ‘거주 외국인’ 신학, 혹은 요터의 ‘소명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관점은 ‘디아스포라’와 ‘추방’을 동일시하는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이다.<sup>32)</sup> 디아스포라는 “원래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두 곳 이상으로 흩어진”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체”로 “자신들의 본향에 대한 [공통된] 기억과 비전, 신화”를 공유하며,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희망을 가

---

Perspective on Interfaith Dialogue,” in *A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astical and Ecumenical* (Harrisonburg, VA: Herald Press, 1994), 245.

30) *Ibid.*, 17.

31) *Ibid.*, 스미스-크리스토퍼는 여기에서 리이사 말키(Liisa Malkki)의 난민에 대한 견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난민은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교정과 치료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이례적 존재(anomaly)’이다.” 이러한 말키의 주장에 대하여 크리스토퍼-스미스는 별도의 인용을 하지 않으나 난민들의 지리적 이주보다는 이들의 신체와 마음에 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말키의 재인용은 다음과 같다. Liisa Malkki, “National Geographic: The Rooting of Peoples and the Territorializing of National Identity among Scholars and Refugees,” A. Gupta and J. Ferguson, eds., *Culture, Power, and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7), 63, 난민을 이 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회정치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말키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스미스 크리스토퍼는 소개한다. 재인용: *Ibid.*, 64.

32) Alain Epp Weaver, *Mapping Exile and Return: Palestinian Dispossession and a Political Theology for a Shared Future* (Minneapolis: Fortress, 2014), 13. 위버는 인류학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디아스포라’와 ‘추방’을 구분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한다.

진 사람들”로 정의할 수는 있다.<sup>33)</sup> 반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집합적 정체성, 즉, 공통의 문화를 통하여 형성된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디아스포라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난민’의 개념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것이 위버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다.<sup>34)</sup> 따라서 팔레스타인 난민의 경우,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추방’으로 난민의 문제를 직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할 때, 팔레스타인 난민의 신학적, 종교적 희망이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고 위버는 해석한다.<sup>35)</sup> 결국, 비자발적 추방에 근거한 디아스포라 신학은 본국으로의 복귀, 또는 자국의 국권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면서 초시간적이며 전위적인 특징, 즉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과거를 인식함과 동시에 상상으로 통해 구조된 미래 사이”를 넘나드는 신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위버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sup>36)</sup>

지금까지 필자는 스미스-크리스토퍼와 위버를 통하여 난민의 존재를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난민의 문제를 일반적인 본래의 고향으로부터 다른 공간과 장소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그 디아스포라의 특성은 ‘추방된 실존’이라는 지적인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추방된 디아스포라적 실존’은 신과의 관계에서 예언자적 소명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관점 또한 디아스포라의 해석에 있어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에서 상실된 실존과 자아의 의미론을 회복하는 기독교적 신학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

33) *Ibid.*, 14. 위버는 윌리엄 사프란(William Safran)의 관점을 소개하지만 이 정의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재인용: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1991), 83-84.

34) *Ibid.*, 15. 위버는 ‘디아스포라’와 ‘추방’을 개념화하는데, 다음의 토마스 트위드(Thomas Tweed)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Thomas Tweed, *Our Lady of the Exile: Diasporic Religion at a Cuban Catholic Shrine in Miami* (NY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83-84.

35) *Ibid.*, 15. 디아스포라 신학에 대한 토마스 트위드의 입장에 대하여, 위버는 다음을 인용한다. Thomas Tweed, *Our Lady of the Exile: Diasporic Religion at a Cuban Catholic Shrine in Miami* (NY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83-84. 아울러 위버는 ‘추방’과 ‘디아스포라’ 개념을 구분하는 Edward Said를 언급한다. Edward Said, *After the Last Sky: Palestinian L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115. *Ibid.*, 15.

36) *Ibid.* 위버는 트위드의 입장을 인용한다. Thomas Tweed, *Our Lady of the Exile*, 97, 139.

#### IV. 난민: ‘밀입국자 하나님’과 ‘난민 그리스도’ 그리고 ‘환영(Welcome)의 신학’

필자는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난민’ 이론을 통하여 ‘자아의 회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난민의 문제는 신학적이며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특히 세계화에 따른 선교와 목회신학적인 적용이 ‘난민’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시장의 세계화에 즈음하여 선교지향적인 기독교 세계화의 관점에서 난민 신학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제후 헨슬스(Jehu J. Hanciles)는 강조한다. 그는 이를 인구 이동의 문제와 연관하여 선교 신학 및 세계 신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난민을 자발적 이주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인구 이동의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7)</sup> 헨슬스는 이러한 방식은 난민을 신학적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단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면서, 난민을 큰 범주에서 이주자로 정의하는 한편, 이주 원인의 다양성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8)</sup>

헨슬스에 의하면, 난민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난민의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 또는 자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sup>39)</sup> 헨슬스는 난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그들에 대한 돌봄의 수준을 넘어

37) Jehu J. Hanciles,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NY: Orbis Books, 2008), 180-181.

38) *Ibid.*, 180.

39) *Ibid.*, 181. 헨슬스는 이주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난민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분법적인 관점은 전통적인 것으로서 현대의 이주나 난민 문제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된 특정한 인종적, 문화적, 전통적 기반을 가진 존재로서 난민을 이해하여야 하고, 신학도 그러한 난민을 신학적 틀을 제공하여 ‘세계화 신학’의 다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0)</sup>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화 신학은 자연히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난민 신학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체드 마이어스(Ched Myers)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 문제와 관련된 신학적 논의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인간 공동체에 대한 지정학적 정의, 지속적이며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주, 그리고 이민자들이 자신의 원 거주지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이슈들은 오늘날 세계 문명에서 계속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사려 깊은 성찰과 숙고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동시에 목회적이다.<sup>41)</sup>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어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재정의를 요청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밀입국자 하나님”(undocumented God), 그리고 그리스도는 “난민 그리스도”(refugee Christ)라고 정의한다.<sup>42)</sup>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문 및 기독교론에 기초하여, 난민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체드 마이어스의 기본적 입장이다.<sup>43)</sup> 마이어스는 난민을 ‘빈곤 이민자’(the immigrant poor)<sup>44)</sup>라는 큰 범주에 두며, 난민을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신학적 접근

40) *Ibid.*, 377. 핸슬스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이주 이동’(migration movement)은 기독교가 종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며, 21세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상호관계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에 서구와 비서구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종교적 교류를 통한 선교지향적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Ibid.*, 377-378

41) Ched Myers, “Introduction: Church without Borders,” Ched Myers and Matthew Colwell, *Our God Is Undocumented: Biblical Faith and Immigrant Justice* (NY: Orbis Books, 2012), 6.

42) *Ibid.*, 7.

43) *Ibid.*

44) 마이어스는 ‘빈곤이민자’라는 개념을 쿠바이민자인 미구엘 토레(Miguel de la Torre)로부터 가져오는데, 별도의 인용부호는 없음을 밝힌다. *Ibid.*, 10.

을 제안하면서, “이민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이민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빈곤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내몰릴 수밖에 없던 더 큰 구조적 원인들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up>45)</sup>

마이어스는 불법 이민의 문제를 역사 비판의 관점으로 그리고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깊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수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잡혀온 내용이라든지, 경제적 목적으로 미국에 자발적으로 온 이민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의 밀입국자들 상당수는 자국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여 불법입국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마이어스는 이민자 중 특히 밀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기당착에 빠지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밀입국 이민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임금 노동 부분이 완전히 [밀입국 이민자들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취볼 때, 완전히 이중적(duplicitous) 태도”<sup>47)</sup>이며, “그들의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원인이 국경 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그들의 특별한 고난과 상처를 견딜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sup>48)</sup>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5) *Ibid.*, 9-10. 채드 마이어스가 지적하는 부분은 불법 이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정치, 사회적 맥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이 주로 경제적 원인에 기반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불법 및 합법 이민이 결정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민하려는 국가에 대한 선택이 그 안에 내재한다면, 난민은 특별한 선택권이 없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된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난민도 큰 범주의 이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난민이 왜 어느 국가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하여, 그 국가나 지역이 난민들을 끌어당기는 요소(pull factors)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지역으로 떠미는 요소들(push factors)까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마이어스는 설명한다. *Ibid.*, 9-11.

46) *Ibid.*, 10-11.

47) *Ibid.*, 14.

48) *Ibid.*, 15.

마이어스는 이렇게 큰 범주에서 난민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론과 기독교론을 제시하며, 그러한 근거에 비추어 ‘환영의 신학’(a theology of welcome)<sup>49)</sup>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의 예배당(sanctuary)은 이러한 환영의 신학이 이루어지는 ‘제단’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이민자들은 그 자체로 예배당에 초대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50)</sup>

마이어스는 구약성경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카인의 표”를 두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를 지켜주심으로써 끊임없는 보복살인을 중지하는 이 내용은 이민신학의 중요한 신학적 모티프가 된다고 보고 있다.<sup>51)</sup> 마이어스는 성서신학적 근거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도 환대를 필요로 하는 외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분으로 묘사된다”<sup>52)</sup>고 설명한다. 마이어스는 “가장 최초로 야훼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면은 그가 ‘세 명의 나그네’로 신비롭게 나타난 모습이다(창 18:1-8).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 그리고 쉴 곳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의 환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된다(창 18:9f)”<sup>53)</sup>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제왕적 이미지의 신론과는 다른 대안적 신론을 제시한다고 보며, 마이어스는 예언자적 환대를 포함하는 예언자적 신학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그로부터 온 인류

49) *Ibid.*, 55.

50) *Ibid.*, 55-56. 마이어스는 그의 글 3장 각주 4에서 ‘제단’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와이의 푸호누아 호나우나우(Pu'uhonua O Honaunau) 국립공원에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처럼 외지인 접촉 이전에 도착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살인범들을 위한 피난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이어스는 이를 염두에 두어 본문에서 ‘제단’(alt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주, *Ibid.*, 214.

51) *Ibid.*, 56. 마이어스는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라고 소개한다. Ched Myers and Enns Elaine, *Ambassadors of Reconciliation, vol. 1: New Testament Reflections on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making* (Maryknoll, NY: Orbis Books, 2009), 63ff.

52) *Ibid.*, 57.

53) *Ibid.*, 57.



를 포함하는 정의를 위한 도덕적 가능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4)</sup>

일각에서는 불법이민을 “정체성 도둑질”(identity-theft)로 규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체드 마이어스는 구조적인 차원의 경제와 정치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난민을 포함하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이미 경제적으로나 인권 측면에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의와 관련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정의의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비난한다.<sup>55)</sup>

지금까지 필자는 핸슬스와 마이어스의 이론들을 통하여 난민 신학의 내용으로서 디아스포라적 실존에 처한 난민들을 위한 ‘환대의 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차원에서 ‘밀입국자 하나님’과 ‘난민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들은 난민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제 다음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난민 신학과 연관하여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V.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의 과제

지금까지 필자는 난민의 기본 요소인 ‘월경’과 ‘생활터전의 상실’에 대하여 개관하고, 디아스포라적 실존, 그리고 난민을 위한 신학적 방법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밀입국자 하나님’이 되시고 ‘난민 그리스도’가 되신 기독교의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중시하는 내용은 교회공동체의 사명, 정치신학적 비평, 그리고 새로운 인식의 틀에서 난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공동체

54) *Ibid.*, 71.

55) *Ibid.*, 177. 마이어스는 “정체성-도둑질”이라는 표현은 가공옥을 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인용한다. *Ibid.*, 176-177.

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서, 엘리나 한켈라(Elina Hankela)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의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특히 ‘레이 희망 난민 목회’(The Ray of Hope Refugee Ministry)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정리하는데, 한켈라는 난민 구호 관련 활동에 내재된 ‘우분투’(Ubuntu) 철학 및 윤리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sup>56)</sup> 한켈라는 ‘우분투’란 남아프리카의 “인간 실존의 상호관계적 본질”<sup>57)</sup>에 근거하는 철학적이며 윤리적 원리로서, “공동체 생활 내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인간의 관계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질 또는 덕[으로서]... 타자에 대한 열린 마음, 타자를 긍정하는 것... 나눔과 환대, 동정과 돌봄 등을 [포함한다]”<sup>58)</sup>고 설명한다.

한켈라는 난민 목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난민 보호 및 구호 활동의 참여자 및 그 활동의 수혜자인 난민을 돕는 ‘구호’라는 과정에 근거한 일방적인 도움과 돌봄으로 정의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주체 대 주체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난민을 단지 외부로부터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 종교, 정치적 차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이웃으로서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59)</sup>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난민 신학적 원리는 기독교윤리의 근간이 되는 타자 난민과의 관계를 주체/객체 이분법을 넘어, 크리스천 공동체가 반드시 중시하여야 할 덕의 특질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치적 차별이 아닌 실존적 차이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래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고 본다.

둘째, 정치신학적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비평이 필요한데, 조슈아 랄스턴

56) Elina Hankela, *Ubuntu, Migration and Ministry: Being Human in a Johannesburg Church*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4-8.

57) *Ibid.*, 2.

58) *Ibid.*, 5.

59) *Ibid.*, 347-349. 한켈라는 난민 목회의 실제적 배경으로 ‘중앙감리교선교’(Central Methodist Mission)의 예를 들고 있다.

(Joshua Ralston)과 같은 학자는 이를 “난민 재정착 정치 신학”<sup>60)</sup>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신학적 접근 방법은, 이민이나 이주 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는 그 국가의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며, 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주행위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리고 신학적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정치신학적 이해가 전제된다고 랄스톤은 주장하는 것이다.<sup>61)</sup> 그는 난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주의에 근거한 세계화 과정에 있다고 보는 윌리엄 카바노(William Cavanaugh)의 신학적 통찰에 동의하면서,<sup>62)</sup> “난민은... 주권국가 체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아이콘”<sup>63)</sup>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볼 때, 난민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은 난민이 처한 절망적인 경제적 현실의 문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분석, 국가 간 경제정의의 실현 가능성, 세계화의 추이, 이주 노동자가 양산되는 배경, 난민의 다양한 종교 간 신앙체계 충돌의 유형, 인종, 성(性), 노동의 종류, 노동에 투입되는 연령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치 신학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셋째, 그러나 위와 같은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난민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르셀 마셀라루(Marcel V. Măcelaru)는 인간은 “생

60) Joshua Ralston, “Toward a Political Theology of Refugee Resettlement,” *Theological Studies* 73(2012), 365. 참고로 랄스톤은 그의 난민에 정치신학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두 학자를 소개하는데, 윌리엄 카바노(William Cavanaugh)의 교회론적 모델과 데이비드 퍼거슨(David Fergusson)의 “공공의 선과 시민사회”에 근거한 신학적 모델이라고 소개한다. Ibid.

61) Ibid., 367 (fn. 14). 랄스톤은 아울러 정치적인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풀 수 없다는 에마 하다드(Emma Haddad)의 관점을 인용하고 있다. 재인용: Emma Haddad,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Society, Between Sovereigns* (New York: Cambridge, 2008), 204.

62) Ibid., 371.

63) Ibid., 372. 랄스톤은 추가로 그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레셔(Loescher)의 *Beyond Charity* 1장을 참고하고 있다고 같은 페이지 각주(Fn. 39)에서 설명한다.

물-정신-사회-영적 실체”(bio-psycho-socio-spiritual entitie s)<sup>64</sup>)로 보아야 한다는 통전적 관점을 강조하며, 난민을 단순히 어떤 이유로 환원하지 말고, 그들의 전체 실존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인간 존재로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sup>65</sup>)

엘리나 나믈리(Elina Namli)는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태도가 너무 개인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에 기초한다고 비판하며,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신학적, 특히 기독교론적 해석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p>66</sup>) 나믈리는 유럽국가들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때문에, 난민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고 비판하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sup>67</sup>)

나믈리는 난민에 대한 서구의 관점도 비판하는데, 난민을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난민 지위의 자격에 국한하는 관점들은 난민을 인간 자체로서 환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sup>68</sup>) 이러한 국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정체성은 난민의 외국인 정체성을 포기하게 하고, 난민이 유입된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난민이 동화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긴다고 나믈리는 비판한다.<sup>69</sup>)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하여 볼 때, 평화를 위한 기독교윤리학의 사명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 그리고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영적 실체로 난민을 인정하는 신학적 인간학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난민을 사회정치적인 유기적 관점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속받아야 하는 영적 인간으로 강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64) Marcel V. Măcelaru, “Christianity and the Refugee Crisis,” *Transformation* 35/2(2018), 71.

65) *Ibid.*, 72.

66) Elena Namli, “Identity and the Stranger: A Christological Critique of Refugee Politics,” *Political Theology* 12/6(2011), 813-829.

67) *Ibid.*, 815-816.

68) *Ibid.*, 818.

69) *Ibid.*

지금까지 필자는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의 기독교윤리학의 과제로서 교회공동체의 사명과 정치신학적인 비판의식, 그리고 난민을 영적 실체로 인정하는 신학적 인간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이 꼭 기독교윤리학이라는 분야의 목표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성과 책임적 존재론을 중시하는 기독교윤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한다. 아울러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치신학과 의식의 개혁도 난민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사명이라고 본다.

## VI. 결론

최근 중앙아메리카의 캐러밴 난민이나 한국 사회의 제주도 예멘 난민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난민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은 약 7000만 명이 된다고 한다.<sup>70)</sup> 이는 현재 전 세계 지구인을 75억 6천 6백만여 명으로 볼 때, 100여 명 중 1명은 난민인 셈이다.<sup>71)</sup> 이는 소위 ‘세계화’라는 것이 시장의 세계화를 통하여 상품의 세계화는 강조하지만, 인간 존재와 인권의 세계화와는 거리가 먼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은 이런 국제사회의 세계화의 폭거에 마주한 난민 문제들에 대하여 ‘밀입국자 하나님’과 ‘난민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국경을 넘어 공해와 사막에서 방황하는 난민들에게 ‘순례자’의 이미지는

70) 중앙일보, “지구촌 난민 7000만 시대…‘캐러밴’ 중미만의 문제 아니다,” 2019. 1. 19. [온라인자료] URL=[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62064](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62064) (2019. 1. 19 접속). 이 자료에 따르면, 유엔 난민 기구(UNHCR)가 관리하는 난민의 숫자가 2540만 명이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기구(UNRWA)가 대신 관리하는 숫자는 580만 명에 이르러서, 이를 합치면 3120만 명이 되는데, “등록·미등록 난민과 망명 신청자 거주지에서 쫓겨나 국내를 떠도는 사람을 합친 전 세계 실향민은 6850만-7149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같은 자료.

71) 세계 인구시계는 2019. 4. 18.을 기준으로 7,566,170,555명이다. [온라인자료] URL=<https://www.census.gov/popclock/> (2019. 4. 18. 오전 1시 15분 접속).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일까? 일면 경제적 세계화에 부응하는 ‘복음의 세계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선교 신학적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디아스포라적 실존의 위기에 처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세계의 바다를 떠도는 부유물이나 바람 부는 사막의 모래처럼 여겨지는 난민에 대하여 신학과 교회 공동체는 난민의 ‘영적 실체’를 환대하며 그 실존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razal, Agnes M. and Dávila, María Teresa eds. *Living with(out) Borders: Catholic Theological Ethics on the Migration of Peoples*. NY: Orbis Books, 2016.
- Cavanaugh, William T. *Migrations of the Holy: God, State,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 Hanciles, Jehu J. *Beyond Christendom :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NY: Orbis Books, 2008.
- Hankela, Elina, Ubuntu, *Migration, and Ministry: Being a Human in a Johannesburg Church*. Laiden and Boston: Brill, 2014.
- Macelaru, Marcel V. "Christianity and the Refugee Crisis," *Transformation* 35/2(2018), 69-76.
- Myers, Ched and Colwell, Matthew. *Our God Is Undocumented: Biblical Faith and Immigrant Justice*. NY : Orbis Books, 2012.
- Namli, Elena, "Identity and the Stranger : A Christological Critique of Refugee Politics." *Political Theology* 12/6(2011), 813-829.
- Ralston, Joshua, "Toward a Political Theology of Refugee Resettlement." *Theological Studies* 73(2012), 363-390.
- Smith-Christopher, Daniel L.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 Fortress, 2002.
-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1967), art. 1(A)(2), 14.
- [온라인자료] URL=<https://www.unhcr.org/en-us/3b66c2aa10>
- Weaver, Alain Epp. *Mapping Exile and Return: Palestinian Dispossession and a Political Theology for a Shared Future*. Minneapolis: Fortress, 2014.
- Zaru, Jean, *Occupied with Nonviolence: A Palestinian Woman Speaks*. Minneapolis : Fortress Press, 2008.

법제처, "난민법(2016.12.20.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자료]  
 URL=<http://www.law.go.kr/> (2019. 1. 11 접속).

**Abstract**

## Theology of Refugees for Peace

Kyoung-dong, Yo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Ethics)

Globally, the refugee problem is a serious issue. Despite the fact that many refugees are wandering on land or seas, solut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does not reach consensus, and this also is the case in the Korean society, where different stances are taken by diverse classes, academic circles and religious views on the Yemen refugees in the Jeju-Island.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expressed that it will reexamine the refugee system in general, while notifying peopl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at corresponds with the western society's refugee policies along with the state's endeavors for the realistic refugee policies, and it is requesting cooperation to the civil society and the religious circles. Concerning the status and the treatment of the refugees i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ocieties, I understand that in the Korean Christianity, there is a stance that looks upon the refugees from viewpoint of love and human rights, and a negative perspective on the refugees with Islamic backgrounds, whereas, negative stance on viewing refugees from nationalistic perspective also exist.

Under such circumstance where the Christian circles are unable to express clear stance on the refugee issue, this paper, keeping in mind of their abusive situations, will examine the role of the Christian theology and the task of the Christian ethics concerning



the status and the treatment of the refugees. There are three theories which the paper will examine at large, and the first will organize the theories connected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definitions regarding 'refugee.' Secondly, I will establish theories of the 'theology of refugee'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connected with the refugees. Thirdly, with regards to the 'theology of refugee,' I will make a proposal concerning the direction of the Christian theology, as both mission and task of the Christian ethics, which can overcome the international society's violence.

---

**Keywords** : efugee, theology of refugees, peace, undocumented God, refugee Christ, Christian ethics

논문투고일자: 2019. 04. 20

논문수정일자: 2019. 05. 21

게재확정일자: 2019. 05. 21

